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김 명 소[†] 김 혜 원
 호서대

한 영 석
 성균관대

임 지 영
 마음사랑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와 구체적으로 행복의 어떤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고, 각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2차 조사를 통해 행복한 삶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전국의 20대-60대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월평균소득, 학력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행복한 삶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집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세부항목을 밝히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성취 및 자기수용'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학력, 직업의 차이에 따라 개인들은 각기 몇 가지의 고유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행복, 인구통계학적 변인, 행복한 삶, 삶의 만족도, 한국인

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한 개인의 행복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5). 하나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이고 사회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

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측면이다. 이중, 초기의 학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현적이고 상황적, 혹은 상향적(bottom-up)인 요인들(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내의 내면적이고 하향적(top-down)인 요인들(예를 들어, 성격, 자아존중감, 적응능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74-HM1016)

[†] 교신저자 : 김명소,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산업심리학과,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mskim@office.hoseo.ac.kr

력 등)을 밝히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아가 이 둘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보인다. 또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행복감을 높이는 선행요인들을 밝히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인가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초기 연구에서 Wilson(1967,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재인용)은 행복한 사람은 성별이나 지능과는 상관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고, 종교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며, 자아존중감과 직업의욕이 높고, 적당한 정도의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Diener 등(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은 Wilson(1967) 이후 삶의 질에 관한 30여 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상향적 요인과 하향적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한편, 개인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을 밝히는데 있어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개의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 부류에서는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정서적, 인지적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적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와 많은 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6;

Myers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반면 다른 부류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려는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좋은 또는 바람직한 삶(good life)에 관한 인상, 상담, 그리고 발달 심리학에서의 여러 이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구체적으로 Ryff(1989)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것이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하였다. 6개 차원은 구체적으로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SA),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PR), 자율성(autonomy: AU),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EM),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P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PG)을 포함한다¹⁾.

이러한 가운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적, 하향적 요인들을 밝힘에 있어 학자들은 행복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적 요인들은 단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추정된 결과를 제공할 뿐 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의 유무와 종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들로 사

1)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및 관련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yff(1989)의 논문을 참조

용되고 있다. 특히, Ryff와 Keyes(1995)의 주장에서와 같이 행복의 하위요인에 주목하고, 개인이 과연 어떤 하위요인에 의해 혹은 어떤 하위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가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간 차이가 여전히 중요한 연구의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학벌지향주의, 취업·진급 등에서의 연령제한 기준, 성별에 따른 비평등한 사회적 기회 제공 등은 이에 대한 사회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개인의 행복과 연결지어 분석해 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밝히는데 있어 대부분의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Diener(1984)나 Ryff(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차경호, 1999; 김혜원, 김명소, 2000;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개발된 문항을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한국인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명소 등(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높은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하고 도출한 바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혹은 바람직한 삶(good life)의 특성들을 조사한 후, 여기서 구성된 문항을 통해 각 특성이 바람직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중요도 평정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의 행복에 대한 구성요인들을 분류하였고, 이들과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한국인들 전반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역시 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타당한 척도의 사용을 통해 한국인들의 행복한 삶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감의 정도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탐색해 보았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행복의 어떤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는가 즉, 각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지는 요인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수준, 학력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서양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수정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행복한

삶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

성별

Diener 등(1999)의 종합적 고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해볼 때 삶의 질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행복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긍정적 정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aun, 1977; Cameron, 1995). 그러므로 전반적 행복감과 만족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Rodgers, 1976; Sauer, 1977).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남성의 높은 행복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도구로 하여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안녕감을 느끼고 있었다(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1999).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경호(1999)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적 정서경험의 빈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적 정서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높은 행복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다. 13세에서 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명한 외, 1994) 여자청소년들은 삶의 질 전체점수에서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여자청소년들은 친구, 친척, 같은 처지의 사람, 자신의 인생목표, 자신의 노력과 기대수준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동성친구와의 관계'와 '자신의 습관태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황정규(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정규(1992)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생활영역 전반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생활사건 영역 면에서는 남녀 청소년간에 비일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무엇이고 두 집단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Ryff와 Keyes(1995)는 2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의 하위요소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성들의 높은 주관적 만족감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전국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김명소 외, 2001) 전체집단을 대상으

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아수용(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부심을 느낌)과 환경지배력(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감)이 남녀 두 집단 모두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집단간에는 예측변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 외에 개인적 성장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반면, 남성에게는 삶의 목적 변인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게는 인생목표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활동(삶의 목적)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편, 여성에게는 이제까지 자신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확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한 변화의지가 있다는 것(개인적 성장)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여성 집단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개인적 성장요인은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즉, 성인여성들은 개인적 성장을 더 추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남성 집단에서는 어느 요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의 기존연구 결과(김혜원, 김명소, 2000)와도 일치하고 있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471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적 성장의 요소는 응답자들의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 기혼여성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긍정적인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함께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연령

초기의 연구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adburn & Caplovitz, 1965). 그러나 몇몇 연구들(Cameron, 1975; Andrews & Withey, 1976; Sauer, 1977)은 행복에 대한 나이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몇몇의 연구에서는(예, Bortner & Hultsch, 1970) 오히려 만족감과 나이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행복에 대한 연령의 부정적 관계가 나타난 바 있다. 20대에서 60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특히 '자신의 생활'과 '자녀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30대 기혼여성들은 40-50대에 비해 애정, 만족감, 기쁨, 자부심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외, 1999).

연령과 행복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심도있는 접근은 연령에 따라 행복의 어떤 하위요인이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해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들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서로 상이함을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환경 지배력과 자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한 Ryff와 Keyes(199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연령과 행복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혜원과 김명소(2000)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모두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 집단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자아수용성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자아수용성과 함께 삶의 목적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40-59세의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신희석, 2002) 자신이 지각하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지각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지각연령이 낮은 집단은 시간전망의 확대와 심리적 만족감 등이 높아 중년기의 위기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남녀 성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총 578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젊은 층에게는 자아수용과 개인적 성장 및 환경 지배력이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중요한 예

측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긍정적 대인관계나 삶의 목적이 좀 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김혜원, 김명소, 2000)를 지지하였다.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이 노년층 삶의 질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개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한 목표감이나 개인적 성장감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자들(예, Ryff, 1989)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연령과 행복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집단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조명한 등(1994)의 연구에서는 16-18세 청소년집단이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집단(13-15세, 19-21세)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서는 인문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중학교, 실업고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삶의 질 전체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18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청소년집단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여부

모든 연구들에서 결혼과 행복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러 대규모의 연구들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ndrews & Wihey, 1976; Glenn, 1975). 이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고하지만, 그들은 더 높은 만족감을 보고한다. 특히 Glenn과 Weaver(1979)는 교육, 소득수준, 취업계층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혼이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잘 예언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20대에서 60대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소 외, 1999)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의 경우보다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앞서 제시된 Wilson (1967)의 정리와 같이 남녀 모두 기혼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는 집단이 기타의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동거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고하였다(Diener et al., 1999).

한편, 행복한 삶에 대한 결혼의 효과는 거의 언제나 긍정적이지만 그 크기가 항상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결혼과 어떤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가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객관적인 결혼여부가 아니라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결혼과 가정의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Campbell 등, 1976; Glenn & Weaver, 1979, 1981).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은 한 개인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느냐, 즉 개인이 담당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수만은 아님이 강조되었다. Aneshensel(1986)은 기혼, 미혼, 취업,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우울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사회적 역할의 수가 아니라 그 역할들이 갖고 있는 질적인 측면임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수가 아니고 각 역할들의 질임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Pines & Kafry, 1981; Marshall & Barnett, 1993; 임정빈, 정혜정, 1986; 김혜원, 1997).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많고, 배우자간의 관계가 동등할 때, 그리고 자신의 자기 존중감이 높을 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는 거의 없거나 부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Andrews & Withey, 1976; Glenn & Weaver, 1979).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부(富)는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본요소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상당양 축적되고 있다.

한 국가내의 개인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연구들은 소득과 주관적 안녕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Braun, 1977; Campbell, et, al., 1976). 이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같은 관련 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역시 소득이 주관적 안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소득 자체로도 그 사람의 주관적 안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Freudiger, 1980; Manicini & Orthner, 1980). 이는 실제로 부유한 사람 또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남편에 대한 적대감을 증가시키고 남편에 대한 온정성을 감소시켜서 결국 부인의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orentz, Conger, Simon, & Whitebeck, 1991). 또한, 경제적 갈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 Williger, 1996).

그러나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는 한 국가 내의 구성원들 간에는 적용이 되나 국가 간에는 그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사람들은 인도사람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평균소득을 갖고 있지만 두 집단간의 소득의 차이만큼 행복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ilver, 1980). 특히 중요한 사실은 시간에 따른 소득의 효과를 살펴볼 때, 한 국가의 전반적인 소득 향상이 구성원들의 행복수준을 꼭 증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Campbell(1981)은 1957년부터 1978년 사이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곡선을 보여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yers(2000)는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속한 나라의 전체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관련 논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Myers(2000)는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복지수준이 높고 국가전체의 풍요로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득이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거의 일관적으로 소득 혹은 경제적 풍요로움이 개인의 행복에 좋은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고 있다.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연숙 등(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은 취업주부들이 받는 임금의 많고 적음이 이들의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혔다.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역할 갈등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사회적 지원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9세의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희석, 2002). 마찬가지로 20대에서 60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좋은 집단에 비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김은정 외, 1999).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국에 거주하는 13-24세의 남녀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조명한 외, 1994), 가장 낮은 가족소득액을 보인 청소년집단이 삶의 질 전체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가장 높은 가족소득액을 보인 청소년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경제적 수준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계는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 경제적 수준은 학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 개인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각 변인의 단독적인 결과인지 혹은 혼합되어 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학력

Campbell(1981)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소득수준과 같은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통제되면 교육수준은 행복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였다(Clemente & Sauer, 1976). 또한 몇몇의 연구들은 행복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 큼을 보고하고 있다(Freudiger, 1980; Glenn & Weaver, 1981).

교육수준과 행복한 삶의 관계는 몇몇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도 검토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대에서 60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우울증상의 정도도 낮았다(김은정 외, 1999). 동일 연령대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김명

소 외, 1999)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교육정도는 이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다.

한편, 취업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교육 연한과 그들의 행복의 경험 사이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더욱 만족하고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며(임정빈, 정혜정, 1987),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ibbard & Pope, 1992). 그러나 다른 집단의 연구들은 주부들의 교육연한이 그들의 심리신체적 안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이순형, 1991). 나아가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해 더욱 걱정을 하고(이연숙 외, 1991),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적게 느끼고 있기도 했다(Loscocco & Spitze, 1990).

방 법

조사목적 및 대상자

1차 조사

1차 조사는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감안하여 20-34세, 35-49세, 50-64세의 남, 여 각각 8-9명으로 구성된 6개 표본, 총 61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2인 1조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참

가자들은 행복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보고하였다.

2차 조사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나타난 특성들이 한국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각 문항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국인들의 행복이나 행복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를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을 선정하였고, 최종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자 31명을 제외한 5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차 조사

3차 조사에서는 전국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1, 2차 조사를 통해 제작된 행복한 삶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Diener et al., 1985), 즉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1503명을 선정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별 분포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조사도구

1차 조사

FGI를 통해 한국의 성인남녀가 생각하는 행복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

문을 사용하였다: (1)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2) 무엇이 당신을 지금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3) 행복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뷰 참가자들이 응답한 행복한 혹은 좋은 삶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기술한 기술문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내용분석을 통해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38개를 추출하였다.

2차 조사

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어진 138개 문항과 기존의 문헌들에서 중요하다고 제시된 종교요인 4개 문항 및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요인 10개 문항을 포함한 15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이 한국인의 행복이나 행복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6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6: 매우 중요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3차 조사

(1) 행복한 삶 척도: 3차 조사를 위해 2차 조사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수정 및 첨가의 검토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 척도를 제작하였다. 행복한 삶 척도는 총 97 문항이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요인에서 내적일치도 계수가 .642-.875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된 행복한 삶의 각 항목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

도록 하였다. 이상의 1, 2, 3차 조사과정을 거쳐 제작된 행복한 삶 척도는, 한국인들의 “행복”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암묵적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객관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의 응답자들을 바탕으로 혹은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존의 도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2) 삶의 만족도: 행복한 삶 척도에 대한 집단별 비교의 준거변인으로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Diener 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 개발한 이후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응답자들은 나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이상에 가까운지에 대해 묻는 총 5개의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매우 반대한다’ ~ ‘7: 매우 찬성한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SWLS는 기존의 연구들(김혜원, 김명소, 2000; 김명소 외, 2001)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다(Cronbach's $\alpha = .67 \sim .81$).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수준(월평균 가구소득), 학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방법

2차 조사에서 얻어진 행복한 삶 척도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일개념성(single factor)

과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이 삭제하고 최종 97문항, 1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삶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 단계에서는 152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어 요인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이들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과 각각의 설명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1요인으로 해석가능한 8개 요인과 2단계에서 도출된 8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1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행복한 삶 척도의 16요인과 요인별 문항들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으며 이 때 직교회전(varimax)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행복한 삶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²⁾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한 삶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인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항	목	사례수 (%)	
성별	남	727	(48.4)
	여	775	(51.6)
연령	20-29세	336	(22.5)
	30-39세	329	(22.0)
	40-49세	329	(22.0)
	50-59세	327	(21.9)
	60세 이상	172	(11.5)
결혼 상태	미혼	343	(22.9)
	기혼, 동거	1106	(73.8)
	이혼(별거), 사별	49	(3.3)
자 녀 수	없음	365	(24.3)
	1명	178	(11.8)
	2명	683	(45.4)
	3명	186	(12.4)
	4명 이상	74	(4.9)
학력	고졸이하	718	(49.2)
	대학교 재학	180	(12.3)
	대졸 이상	559	(38.3)
거 주 지	서울	714	(48.5)
	인천	148	(10.0)
	부산	222	(15.1)
	대구	201	(13.6)
	광주	76	(5.1)
	대전	80	(5.4)
	춘천	30	(2.0)
직 업	학생	180	12.3
	주부	356	24.4
	자영업	321	22.0
	영업직	98	6.7
	사무직	226	15.5
	생산직	72	4.9
	전문직	39	2.6
	공무원	41	2.8
	기타	124	8.5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92	20.1
	150-250	464	32.0
	250-350	446	30.8
	350-450	138	9.5
	450만원이상	107	7.3
전	체	1503	(100.0)

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한 삶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행복한 삶의 척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단간 행복감 비교

성별에 따른 비교

성별에 따른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16개의 하위영역 중 총 10개의 항목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전체 척도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배우자(여성)와의 사랑 및 신뢰’, ‘외모’, ‘건강’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와 ‘종교’에서만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더 행복을 느끼고,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타인과의 좋은 관계나 종교적 만족감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행복한 삶 척도 개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을 참고.

표 2.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비교

(단위: M(SD))			
요인	남자(n=727)	여자(n=775)	t
경제력	3.49(0.86)	3.48(0.91)	0.12
성취 및 자기수용	3.77(0.84)	3.71(0.84)	1.27
여가	3.41(0.88)	3.23(0.93)	3.82**
사회적 지위 및 인정	3.69(0.69)	3.54(0.79)	3.68**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4.19(0.68)	4.01(0.72)	4.78**
자립성	4.55(0.58)	4.42(0.61)	4.23**
사회정치문화환경	3.30(0.73)	3.19(0.70)	2.93**
종교	3.25(1.09)	3.55(1.20)	-5.09**
사회봉사	3.28(0.81)	3.27(0.92)	0.23
자녀의 바른 성장	4.55(0.41)	4.52(0.45)	1.48
가족	4.57(0.63)	4.54(0.67)	0.98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4.35(0.61)	4.17(0.72)	5.00**
대인관계	4.25(0.64)	4.32(0.63)	-2.25*
외모	3.94(0.68)	3.67(0.76)	7.08**
긍정적 인생관	4.23(0.65)	4.28(0.68)	-1.22
건강	4.31(0.74)	4.19(0.77)	3.23*
전체*	3.95(0.42)	3.88(0.44)	2.85*

a. 전체는 16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연령에 따른 비교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전체 척도에서는 연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부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정치’, ‘종교’, ‘사회봉사’,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긍정적 인생관’, ‘건강’이었다.

표 3.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비교

(단위: M(SD))						
요인	(1)20대 (n=336)	(2)30대 (n=329)	(3)40대 (n=329)	(4)50대 이상 (n=500)	F	Scheffe
경제력	3.49 (0.87)	3.41 (0.86)	3.46 (0.88)	3.56 (0.94)	1.85	1=2=3=4
성취 및 자기수용	3.84 (0.82)	3.65 (0.84)	3.69 (0.83)	3.77 (0.88)	3.63*	1>2
여가	3.47 (0.82)	3.30 (0.89)	3.27 (0.93)	3.27 (0.99)	4.02*	1>3,4
사회적 지위 및 인정	3.69 (0.70)	3.62 (0.77)	3.62 (0.74)	3.55 (0.78)	2.62*	1=2=3=4
자기개발 및 목표	4.21 (0.72)	4.10 (0.76)	4.12 (0.65)	4.01 (0.70)	5.21*	1>4
자립성	4.42 (0.65)	4.49 (0.62)	4.55 (0.57)	4.48 (0.58)	2.52	1=2=3=4
사회정치 문화환경	3.14 (0.68)	3.17 (0.69)	3.22 (0.79)	3.40 (0.70)	11.79***	4>1,2,3
종교	3.05 (1.21)	3.41 (1.12)	3.48 (1.13)	3.60 (1.14)	16.08***	2,3,4>1
사회봉사	3.21 (0.81)	3.20 (0.86)	3.29 (0.89)	3.36 (0.91)	2.99*	4>2
자녀의 바른 성장	4.50 (0.26)	4.58 (0.42)	4.57 (0.47)	4.52 (0.51)	2.98*	2>1
가족	4.53 (0.72)	4.60 (0.67)	4.58 (0.67)	4.54 (0.57)	0.88	1=2=3=4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4.22 (0.54)	4.37 (0.66)	4.32 (0.77)	4.16 (0.70)	7.94***	1,2,3>4
대인관계	4.45 (0.65)	4.33 (0.63)	4.23 (0.66)	4.19 (0.61)	12.29***	1,2>4/1>3
외모	3.86 (0.76)	3.84 (0.75)	3.80 (0.75)	3.75 (0.71)	1.94	1=2=3=4
긍정적 인생관	4.12 (0.74)	4.23 (0.68)	4.31 (0.62)	4.33 (0.65)	7.98***	3,4>1
건강	4.42 (0.73)	4.42 (0.72)	4.27 (0.75)	4.01 (0.76)	29.67***	1,2,3>4
전체*	3.91 (0.41)	3.92 (0.43)	3.92 (0.45)	3.91 (0.45)	0.06	1=2=3=4

a. 전체는 16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01$

세부요인별 추후분석(Scheffe test) 결과에 따르면 ‘경제력’, ‘자립성’, ‘가족’, ‘외모’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20대의 경우는 30대에 비해 ‘성취 및 자기수용’에서 더 행복을 느끼고, 40대에 비해서는 ‘여가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더 행복을 느끼고, 50대 이상에 비해서는 ‘여가’,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건강’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경우는 50대 이상에 비해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건강’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고, 4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와 ‘건강’의 영역에서 더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든 집단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영역은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긍정적인 인생관’이었다. 50대 이상의 집단은 20, 30, 40대의 집단에 비해 ‘사회정치문화환경’에 대해 더 만족하고, 30대에 비해 ‘사회봉사’활동에서 더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30, 40, 50대 이상의 집단은 20대에 비해 ‘종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30, 40대 집단은 20대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은 사회적 성취나 자신에 대한 수용 등의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충족이 행복의 요소가 되는 반면, 비교적 나이든 집단은 보다 많은 인생의 여유, 사회 전반의 안정, 배우자 혹은 타인과의 관계와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비교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표 4), 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의 집단간에 전체평균점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에서는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비교

(단위: $M(SD)$)

요인	(1)기혼 (n=1105)	(2)미혼 (n=343)	(3)이혼, 별거,사별 (n=49)	F	Scheffe
경제력	3.51(0.87)	3.48(0.90)	3.48(1.00)	0.18	1=2=3
성취,자기수용	3.82(0.83)	3.72(0.85)	3.63(0.88)	2.22	1=2=3
여가	3.49(0.78)	3.28(0.95)	3.05(0.95)	8.54***	1>2,3
지위, 인정	3.73(0.70)	3.60(0.75)	3.28(0.95)	8.90***	1>2,3/2>3
자기계발, 목표	4.23(0.71)	4.07(0.71)	3.79(0.69)	11.00***	1>2,3/2>3
자립성	4.44(0.65)	4.50(0.58)	4.54(0.67)	1.36	1=2=3
사회환경	3.17(0.67)	3.26(0.74)	3.47(0.66)	4.58*	3>1
종교	3.05(1.18)	3.51(1.13)	3.72(1.24)	22.63***	3>1
사회봉사	3.22(0.79)	3.30(0.89)	3.38(0.95)	1.45	1=2=3
자녀 성장	4.50(0.23)	4.54(0.48)	4.63(0.57)	2.15	1=2=3
가족	4.51(0.73)	4.57(0.64)	4.60(0.45)	1.44	1=2=3
배우자 사랑	4.19(0.45)	4.29(0.74)	3.97(0.33)	7.62***	2>1,3
대인관계	4.43(0.67)	4.26(0.62)	4.19(0.76)	9.72***	1>2
외모	3.90(0.74)	3.79(0.73)	3.61(0.89)	4.67**	1>3
긍정 인생관	4.14(0.72)	4.29(0.65)	4.36(0.65)	7.31***	2>1
건강	4.41(0.74)	4.22(0.76)	3.85(0.85)	14.98***	1>2,3/2>3
전체 ^a	3.92(0.40)	3.92(0.44)	3.85(0.45)	0.63	1=2=3

a. 전체는 16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01$

먼저 기혼 집단이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낀 요인은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건강’ 요인이었다. 미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요인에 대해 기혼이나 이혼-별거-사별 집단 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사별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종교’ 요인에서 기혼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행복의 요인이 비교적 자신에게 쏠려있어 자신의 계발과 사회적 인정 또는 더 많은 여가생활이 행복의 요소가 되는 반면, 결혼의 경험이 없는 미혼집단은 사랑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행복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비교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행복감의 전체 점수에서는 흥미롭게도 월평균 가구당 250-35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50-350만원 이상 집단과 이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250만원-350만원, 350만원-450만원, 450만원 이상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250만원의 집단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집단간 차이를 보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한 개인의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간 차이에 대해 추후분석 결과, 차이가

표 5.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행복감의 비교

(단위: $M(SD)$)

요인	(1)150 만원 이하 (n=292)	(2)150~ 250만원 (n=464)	(3)250~ 350만원 (n=446)	(4)350~ 450만원 (n=138)	(5)450 만원 이상 (n=107)	F	Scheffe
경제력	3.27 (0.95)	3.30 (0.86)	3.61 (0.82)	3.83 (0.82)	4.00 (0.85)	27.43***	5>1,2,3/4>1,2 /3>2
성취 및 자기수용	3.62 (0.91)	3.63 (0.81)	3.81 (0.82)	3.93 (0.84)	3.94 (0.84)	7.57***	4,5>1,2/ 3>2
여가	3.20 (0.91)	3.17 (0.89)	3.46 (0.95)	3.47 (0.88)	3.50 (0.90)	9.23***	4,5>2/3>1,2
사회적 지위 및 인정	3.47 (0.80)	3.50 (0.76)	3.71 (0.70)	3.82 (0.71)	3.86 (0.69)	13.12***	3,4,5>1,2
자기계발, 목표	4.03 (0.74)	3.98 (0.75)	4.20 (0.62)	4.25 (0.70)	4.19 (0.72)	8.40***	3>1,2 /4>2
자립성	4.42 (0.64)	4.42 (0.60)	4.57 (0.58)	4.52 (0.57)	4.58 (0.57)	5.29**	3>1,2
사회환경	3.12 (0.67)	3.25 (0.69)	3.32 (0.75)	3.34 (0.79)	3.15 (0.75)	4.52*	4>1
종교	3.27 (1.28)	3.42 (1.14)	3.45 (1.10)	3.47 (1.15)	3.60 (1.20)	1.92	1=2=3=4=5
사회봉사	3.19 (0.87)	3.23 (0.84)	3.36 (0.89)	3.28 (0.86)	3.38 (0.99)	2.56*	5>1
자녀 성장	4.46 (0.40)	4.50 (0.47)	4.59 (0.42)	4.59 (0.43)	4.63 (0.46)	6.54***	5,3>1
가족	4.45 (0.72)	4.53 (0.63)	4.62 (0.63)	4.58 (0.67)	4.64 (0.65)	3.71*	5,3>1
배우자사랑	4.16 (0.66)	4.20 (0.67)	4.31 (0.66)	4.27 (0.72)	4.55 (0.75)	8.01***	5>1,2,3,4
대인관계	4.30 (0.70)	4.23 (0.64)	4.36 (0.59)	4.23 (0.68)	4.32 (0.62)	2.48*	3>2,4
외모	3.77 (0.80)	3.73 (0.70)	3.87 (0.74)	3.86 (0.67)	3.88 (0.79)	2.65*	5>2
긍정적 인생관	4.16 (0.72)	4.20 (0.66)	4.36 (0.63)	4.28 (0.77)	4.37 (0.60)	5.51**	3>1,2
건강	4.26 (0.81)	4.18 (0.74)	4.25 (0.78)	4.37 (0.63)	4.33 (0.86)	2.15	1=2=3=4=5
전체*	3.82 (0.46)	3.84 (0.43)	3.99 (0.40)	4.01 (0.43)	4.06 (0.40)	14.87***	5,4,3>1,2

a. 전체는 16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01$

나타나지 않은 것은 ‘종교’와 ‘건강’뿐 이었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모두 세부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평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월평균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집단과 250만원 이상의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많았고, 250-350만원을 기준으로 고저 각 집단들 사이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결과로, 월평균소득이 250-350만원인 집단은 150-250만원인 집단 뿐 아니라 350-450만원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영역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비교

학력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어, 높은 학력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학재학의 학력을 기준으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에서의 차이를 보면 이타심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영역에서 모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과 고졸이하의 집단간에는 ‘경제력’,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외모’, ‘건강’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의 학생집단이 두드러지게 행복해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성취 및 자기수용’과

표 6. 학력에 따른 행복감의 비교

(단위: M(SD))

요인	(1)고졸 이하 (n=718)	(2)대학 재학 (n=180)	(3)대졸 이상 (n=559)	F	Scheffe
경제력	3.39(0.91)	3.58(0.84)	3.58(0.87)	8.59**	2,3>1
성취 및 자기수용	3.64(0.85)	4.02(0.75)	3.78(0.84)	15.73***	2>3>1
여가	3.17(0.97)	3.57(0.71)	3.43(0.88)	20.68***	2,3>1
사회지위 및 인정	3.42(0.76)	3.83(0.64)	3.80(0.71)	50.36***	2,3>1
자기계발, 목표 자립성	3.96(0.70)	4.29(0.71)	4.22(0.69)	27.57***	2,3>1
자립성	4.43(0.60)	4.46(0.65)	4.56(0.59)	8.03**	3>1
사회환경	3.31(0.73)	3.11(0.57)	3.21(0.74)	6.96**	1>2,3
종교	3.48(1.12)	3.06(1.31)	3.43(1.15)	9.57***	1,3>2
사회봉사	3.27(0.90)	3.24(0.83)	3.30(0.85)	0.37	1=2>3
자녀 바른 성장	4.51(0.47)	4.48(0.31)	4.59(0.43)	6.49*	3>1,2
가족	4.52(0.61)	4.57(0.74)	4.61(0.68)	3.27*	3>1
배우자 사랑	4.17(0.69)	4.28(0.59)	4.37(0.68)	13.85***	3>1
대인관계	4.22(0.62)	4.52(0.67)	4.31(0.65)	16.43***	2>1,3
외모	3.69(0.75)	3.94(0.82)	3.90(0.68)	16.61***	2,3>1
긍정적 인생관	4.28(0.64)	4.13(0.74)	4.28(0.68)	3.63*	1,3>2
건강	4.10(0.76)	4.47(0.77)	4.38(0.73)	29.47***	2,3>1
전체	3.85(0.44)	3.97(0.39)	3.98(0.42)	17.32***	2,3>1

a. 전체는 16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01$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대재 집단은 대졸이상의 집단과 고졸이하의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재학의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생관’과 ‘종교’의 두 영역에서 더 낮은 행복감을 보였다. 또한 ‘사회정치문화환경’의 영역에서는 고졸이하의 학력집단이 대재집단이나 대졸이상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해 다른 영역에서의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행복감의 중요 설명변인에 대한 집단간 비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중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한 변인들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행복감의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삶의 만족도 점수를 준거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5개의 변인이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의 절반을 넘는 52%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7. 전체 집단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예 측 변 인	β	R^2	ΔR^2	Fchange
성취 및 자기수용	0.436	0.471	0.471	1300.10***
경제력	0.205	0.506	0.034	100.91***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76	0.513	0.007	21.95***
여가	0.093	0.519	0.005	17.76***
사회봉사	0.038	0.520	0.001	3.34*

* $p < .05$ *** $p < .001$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성취 및 자기수용’이었고 다음으로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이타심’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설

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성의 경우, ‘성취 및 자기수용’이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종교’가 이들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변인은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53.4%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표 8.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 측 변 인	β	R^2	ΔR^2	Fchange
남성 (n=727)	성취 및 자기수용	0.464	0.490	0.490	668.31***
	경제력	0.197	0.520	0.029	41.91***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84	0.528	0.008	12.92***
	여가	0.096	0.539	0.004	7.32**
	종교	0.072	0.534	0.005	7.79**
여성 (n=771)	성취 및 자기수용	0.427	0.453	0.453	631.73***
	경제력	0.209	0.493	0.039	59.08***
	여가	0.110	0.499	0.006	10.54***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89	0.506	0.006	9.65***

** $p < .01$ *** $p < .001$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성취 및 자기수용’이 역시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경제력’, ‘여가’,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변인들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5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집단을 비교할 때 독특하게 나타난 요인은, 여성과 달리 남성집단에서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서 종교요인이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도출한 것은 다른 행복요인과의 관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성에게서 종교요인은 다른 행복요인에 영향을 덜 받는 독특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여성에게서 종교요인은 다른 행복요인과의 관련성 때문에 중다회귀분석결과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전체적으로 볼 때 20대에서 50대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중요 설명변인은 ‘성취 및 자기 수용’과 ‘경제력’이었다.

20대의 경우 ‘성취 및 자기수용’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제력’,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3.8%였다.

30대의 경우는 20대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다음으로 ‘성취 및 자기수용’, ‘이타심’,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총 47.1%였다.

40대 응답자들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자녀의 바른 성장’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자녀의 바른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40

대를 기점으로 자녀의 상태 또는 특성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개 요인이 설명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은 약 55.8%였다.

표 9. 연령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 측 변 인	β	R^2	ΔR^2	Fchange
20대 (n=336)	성취 및 자기수용	0.513	0.478	0.478	298.79***
	경제력	0.238	0.526	0.048	33.40***
	사회정치	0.122	0.538	0.011	8.39**
30대 (n=329)	경제력	0.398	0.404	0.404	220.09***
	성취 및 자기수용	0.263	0.459	0.055	33.15***
	이타심	0.090	0.465	0.005	3.48+
40대 (n=329)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85	0.471	0.006	3.77+
	성취 및 자기수용	0.497	0.515	0.515	346.56***
	경제력	0.152	0.537	0.022	15.56***
50대 이상 (n=500)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97	0.552	0.015	11.05**
	자녀의 바른 성장	0.086	0.558	0.005	4.28*
	성취 및 자기수용	0.428	0.486	0.486	444.73***
50대 이상 (n=500)	여가	0.153	0.511	0.025	24.16***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139	0.522	0.011	9.85***
	경제력	0.092	0.530	0.008	8.59**
50대 이상 (n=500)	건강	0.066	0.534	0.004	3.89*

* $p < .05$ ** $p < .01$ *** $p < .001$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경제력’, ‘건강’의 5개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5개 요인이 설명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은 53.4%였다. 20, 30, 40대의 응답자들과 비교할 때 ‘성취 및 자기수용’과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의 중요성은 유사하였

지만, 젊은 연령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여가’와 ‘건강’요인이 새로운 중요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혼여부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결혼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결혼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이혼, 별거, 사별의 결혼상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기혼집단과 미혼집단을 대상으로만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이혼, 별거, 사별의 집단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사례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총 49명).

표 10. 결혼여부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측변인	β	R^2	ΔR^2	Fchange
기혼 (n=1106)	성취 및 자기수용	0.422	0.471	0.471	956.6***
	경제력	0.202	0.501	0.030	64.86***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107	0.512	0.010	23.73***
	여가	0.091	0.517	0.005	11.86***
	건강	0.111	0.529	0.009	4.94*
미혼 (n=343)	성취 및 자기수용	0.486	0.465	0.465	290.08***
	경제력	0.227	0.509	0.044	29.88***
	외모	0.097	0.518	0.009	6.30**
	사회정치문화환경	0.081	0.524	0.005	3.69*

a. 이혼(별거), 사별의 사례는 제외

* $p < .05$ ** $p < .01$ *** $p < .001$

기혼의 경우 ‘성취 및 자기수용’이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건강’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5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2.9%였다.

미혼의 경우는 기혼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성취 및 자기수용’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다음으로 ‘경제력’, ‘외모’, ‘사회정치문화환경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요인의 설명변량은 총 52.4%였다. 기혼집단과 비교하여 미혼집단에서 독특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모’와 ‘사회정치문화환경요인’이었다. 즉 미혼집단의 경우 자신의 외모의 상태와 이에 대한 자신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기 등에 따라서 기혼집단에 비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치문화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공정성, 정치의 안정성, 문화적 다양성, 환경적 쾌적성에 대해 기혼 집단 보다 더 민감하며, 이들 요인에 따라 미혼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월평균가구 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전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요변인은 ‘성취 및 자기수용’이었고, ‘경제력’은 최고 소득계층인 450만원 이상의 집단을 제외한 4개 집단에서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적은 15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이었고, 총 설명변량은 52.8%였다. 다른 소득 계층과 비교해 볼 때 이 집단에서는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의 요인이 독특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지만 소득 이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들 계층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1.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 단	예 측 변 인	β	R^2	ΔR^2	Fchange
150만원 미만 (n=292)	성취 및 자기수용	0.415	0.461	0.461	248.84***
	경제력	0.310	0.522	0.060	36.52***
	자기개발, 목표추구	0.107	0.528	0.006	3.77*
150-250만원 (n=464)	성취 및 자기수용	0.393	0.469	0.469	395.00***
	경제력	0.217	0.498	0.039	33.85***
	사회적 지위 및 인정	0.128	0.507	0.009	6.53*
250-350만원 (n=446)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107	0.516	0.009	9.27*
	성취 및 자기수용	0.449	0.465	0.465	386.02***
	경제력	0.151	0.488	0.023	20.62***
350-450만원 (n=138)	여가	0.132	0.498	0.009	8.29*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79	0.506	0.008	7.71*
	성취 및 자기수용	0.388	0.419	0.419	98.12***
450만원 이상 (n=107)	종교	0.237	0.476	0.055	14.55**
	경제력	0.169	0.491	0.024	5.99*
	성취 및 자기수용	0.571	0.540	0.540	124.75***
	여가	0.176	0.576	0.046	11.26**
	외모	0.131	0.675	0.098	5.20*

* $p < .05$ ** $p < .01$ *** $p < .001$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집단에서는 ‘성취 및 자기 수용’, ‘경제력’과 함께 ‘사회적 지위 및 인정’과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가 삶의 만족도를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1.6%였다. 이들 소득 계층에서는 기타의 4집단과 달리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비교적 저소득층인 이들 집단이 우리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와 인정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250-350만원의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가 이들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중하위의 소득집단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와 신뢰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응답자를 볼 때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중간집단인 250-350만원 사이의 집단에서는 ‘성취 및 자기 수용’, ‘경제력’, ‘여가’,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가 삶의 만족도를 예견하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고 4개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약 50.6%였다. 이들 소득계층에서 두드러진 점은 ‘여가’의 중요성이었다. 최고 고소득계층인 450만원 이상의 집단과 함께 250-350만원의 소득계층은 여가가 삶의 만족도에서 의미있는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비록 경제력에 대한 다소의 부족감은 느낄지 모르나 여가생활을 통한 자유로움이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350-450만원의 경우에는 ‘성취 및 자기 수용’, ‘종교’, ‘경제력’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3개 요인의 설명량은 49.1%였다. 이들 소득 계층에서 독특한 점은 다른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은 ‘종교’의 중요성이었다. 이는 비교적 상위의 소득수준인 이 집단이 종교생

활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충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450만원 이상의 응답자들은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외모'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변인의 총 설명변량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7.5%였다. 다른 소득 계층과의 차이는 '경제력'요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들 고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달리 경제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흥미롭게도 기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외모'가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외모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비교

응답자들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3집단 모두에서 '성취 및 자기수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력' 요인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학력 계층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여가'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총 설명변량은 50.6%였다. 가장 저학력계층인 이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

표 12. 학력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 측 변 인	β	R^2	ΔR^2	Fchange
고졸이하 (n=718)	성취 및 자기수용	0.355	0.448	0.448	582.01***
	경제력	0.202	0.484	0.036	50.82***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123	0.497	0.012	18.19***
	사회적 지위 및 인정	0.096	0.500	0.003	4.55*
대학재학 (n=180)	여가	0.081	0.506	0.006	8.97*
	성취 및 자기수용	0.472	0.400	0.400	118.84***
	경제력	0.279	0.475	0.075	25.47***
대학졸업 이상 (n=559)	사회정치문화환경	0.173	0.502	0.027	9.55*
	성취 및 자기수용	0.493	0.510	0.510	580.23***
	경제력	0.164	0.531	0.021	25.12***
	여가	0.110	0.538	0.007	9.00*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0.049	0.542	0.004	4.80*

* $p < .05$ *** $p < .001$

여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에 의해 삶의 만족도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학재학의 계층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 '사회정치문화환경'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들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총 설명변량은 50.2%였다. 이들 계층에서는 독특하게 '사회정치문화환경요인'이 중요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재학생들이 다른 집단과 달리 우리사회의 정치, 문화, 직업, 또는 교육환경 등에 의해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의 가장 고학력집단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과 함께 '여가', '배우자(이성)와의 사랑과 신뢰'가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변인

의 총 설명변량은 54.2%였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볼 때, 이 집단에서만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3개의 집단을 전체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고졸이하의 집단과 대졸이상의 집단의 유사성(혹은 대재집단의 특이성)이다. 고졸이하의 집단과 대졸이상의 집단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고졸이하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대재집단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논 의

한 개인의 삶의 질, 나아가 행복정도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최근 들어 국내의 연구자들도 한국인의 행복의 정도를 밝히고 한국인의 행복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양 문화권에서 제기된 연구의 틀을 그대로 따르거나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삶의 질이 어떤 양상인지를 밝히는데 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개인의 행복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감의 정도를 밝히는데 있어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측정하는 척도를 새롭게 제작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행복한 삶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들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행복한 삶 척도의 전체값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체값을 이루는 하위요소들은 행복감을 이루는 구체적인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전체평균에서는 성별, 월평균소득, 학력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행복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행복한 삶의 전체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복한 삶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서양의 연구들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은 데 반해(Andrews & Withey, 1976; Sauer, 1977), 국내의 연구들(조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에서는 일관적으로 남성의 우위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의 효과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16개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와 종교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외모, 건강)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복한 삶의 전반적인 항목들에서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복한 삶의 전체 점수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질과 연령간의 부적 관계를 보여준 기존의 국내연구들(김은정 외, 1999; 김명소 외, 1999)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연령이 행복한 삶에 대해 갖는 비일관적 효과를 보여준 서양의 연구들(Bortner & Hultsch, 1970; Andrews & Withey, 1976; Cameron, 1975; Sauer, 1977)과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경제력과 자립성, 가족, 외모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 연령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난 대부분의 요인들(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봉사,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건강)에서는 연령이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해 하고 있었으나 사회정치와 종교, 긍정적인 인생관에 대해서는 나이 든 집단이 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젊은 층과 나이 든 층이 행복을 느끼는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젊은 층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영역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영역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반면, 나이 든 집단은 보다 넓은 사회환경적 조건이나 종교생활에서 더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요구되는 심리학적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이 초기와 중기에는 주로 자신의 정체감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성 형성 등의 내용을 갖는 반면, 인생의 후기에는 자신에 대한 통합감 뿐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 대해 갖고 있

는 유용성, 생산성 등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기존의 제시들(예: Erickson, 1968, 최윤미, 1997 재인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결혼여부가 행복한 삶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성별이나 문화권, 질적인 측면 등에 의해 다시 차이를 나타냈다(Andrews & Wihey, 1976; Campbell et al., 1976; Glenn & Weaver, 1979; Aneshensel, 1986; Marshall & Barnett, 1993; Diener et al., 1999; 임정빈, 정혜정, 1986; 김혜원, 1997; 김명소 외,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행복한 삶의 전체점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상의 비일관적 연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는 기혼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갖는 비교적 높은 행복감이 나타났는데, 특히 기혼집단은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의 집단에 비해 여가생활이나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건강의 영역에서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미혼인 집단은 기혼이나 이혼-별거-사별집단에 비해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 더 큰 만족도를 보여, 이들 집단이 사랑을 통해 얻고 있는 만족감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의 집단이 높은 만족감을 보인 영역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문화정치적 영역과 종교생활에 대해서였다. 타 집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김명소 외, 1999)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는 사회전반적인 흐름이나 종교활동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들(Campbell, et al., 1976; Freudiger, 1980; Manicini & Orthner, 1980; Lorentz et al., 1991; Ross & Williger, 1996; 이연숙 외 1991; 조명한 외, 1994; 김은정 외, 1999; 신회석, 2002)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갖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상당히 일관적이어서, 측정된 16개의 영역 중 14개의 영역에서 모두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경제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종교와 건강의 영역이어서 이 영역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환원하면 한 개인이 종교적으로 만족한가 그리고 건강하게 느끼는가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특징과 건강이라는 요소가 개인의 물질적 풍요의 증가에 따라 보장될 수 없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쉽게 예상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정도를 비교적 뚜렷이 구분짓는 소득수준이 있었는데, 이는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었다. 이 수준의 소득을 경계로 하여 상하의 집단 간에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의 고저를 예견케 하는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 250-350만원 정도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서도 개인은 행복감에 차이를 보였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기타 집단에 비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었다. 대학생들은 고졸이하나 대졸이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성취 및 자기수용과 대인관계에 대해 더 만족하는 반면, 긍정적인 인생관과 종교의 영역에서는 덜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가장 학력이 낮은 집단이 더 행복해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정치문화의 영역에 대해서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개인의 행복이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은 삶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집단이 고졸, 대학생, 대졸이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대학생을 전후로 하는 연령변인 또한 혼재되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변인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성취 및 자기수용감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다음으로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른 분석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취 및 자기수용감과 경제력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두드러져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학력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에서 두 요인은 모든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제반 인구

통계학적 차이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 것(성취 및 자기수용감)이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취 및 자기수용감과 함께 경제력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복되는 결과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효용성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취 및 자기 수용,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및 사회 봉사 이외의 11개 행복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또한 이들 16개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에서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변인이 인구통계학적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 거의 모든 집단에서 성취 및 자기수용감과 경제력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요소였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요인 외에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의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난 설명변인이 종교밖에 없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의 삶의 질에 종교생활이 갖는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집단간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종교생활에 더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는 대조적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 비해 자녀의 바른 성장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30대 이하의 경우는 자녀가 아직 어린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정이 부모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0대의 경우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인 경우가 많아(즉, 청소년기의 자녀) 그들의 학업성취나 심리적 상태 등이 부모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젊은 연령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는 여가와 건강의 요인이 삶의 질에 대한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서 여가와 건강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여가생활을 통한 자유감이나 여유감을 느끼는 것과 일정수준 이상의 건강상태를 지니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혼과 미혼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미혼인 사람들은 기혼인 사람들과 달리 사회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인 사람들이 기혼인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장구조나 교육제도, 사회 분위기, 치안유지, 문화예술적 환경, 자연환경 등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혼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외모가 갖는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외모나 스타일, 남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호감, 외모에 대한 자신감 등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자기계발 및 목

표추구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타 집단과 비교하여 독특하게 중요한 요인이었고, 150-250만원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 250-350만원의 집단에서는 여가, 350-450만원인 집단에서는 종교가, 가장 고소득층인 45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외모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소득수준에 속하는 개인들이 우리사회에서 경험하거나 아쉬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저소득집단의 경우 자기계발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이 고소득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요소들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을 때 그 개인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이 저소득집단이 보여주는 치열함보다는 종교생활이나 외모에 대한 만족감 등이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문항들로 행복한 삶의 척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반응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보다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전국적 분포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충분히 고르게 혹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 고 문 헌

- 김명소, 김혜원(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2002 한국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는문집.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 김혜원(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김혜원(1997).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주부, 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115-136.
- 신희석(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이순형(1991). 취업여성의 자녀보육형태와 심리적 적응. 여성연구, 9(4), 81-110.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집문당*.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최윤미 외(1987).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neshensel, C. S.(1986). Marital and employment role-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adult women. In S. E. Hobfoll(Ed.), *Stress, social support, and women*. Washington: Hemisphere.
- Bortner, R. W., & Hiltch, D. F. (1970).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25, 41-4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aun, P. M. W.(1976).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ameron, P.(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lemente, F. & Saucer, W. J.(1976).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54, 621-63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Emmons, R.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Freudiger, P. T.(1979). Life Satisfaction of among American Women. Doctoral Dissertation of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 Glenn, N, D., & Weaver, C. N.(1979). A note on family situation and global happiness, *Social Forces*, 57, 960-967.
- Hibbard, J. H. & Pope, C. R. (1987).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among men and women, *Women and Health*, 12(2), 85, 102.
- Lorenz, F., Conger, R., Simon, R., & Whitebeck, L. (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method variance problem in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375-388.
- Loscocco, K. A. & Spitze, G. (1990). Work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female and male factory workers. *Journal of*

-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313-327.
- Mancini, J. A., & Orthner, D. K.(1980). Situational influence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 466-471.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64-7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ines, A. & Kafry, D. (1981). The experience of tedium in three generation of professional women. *Sex Roles*, 7(2), 117-134.
- Ross, C. E., & Willigen, M. V. (1996). Gender, parenthood, and ang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72-58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auer, W.(1977). Morale of the urban aged: A regression analysis by race, *Journal of Gerontology*, 32, 600-608.
- Silver, M.(1980). Money and happiness? Towards eudaimonlogy, *Kyklos*, 33, 157-160.
- 1 차원고접수일 : 2003. 10.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6
최종게재결정일 : 2003. 12. 2

부 록

<부록 1> 행복한 삶 척도 10요인 기초 요인해

	요 인									
	1	2	3	4	5	6	7	8	9	10
고유치	17.70	5.98	3.52	2.29	2.12	1.71	1.65	1.38	1.26	1.16
고유치 차이	11.72	2.46	1.23	0.17	0.41	0.06	0.28	0.12	0.10	0.21
설명변량%	0.40	0.13	0.08	0.05	0.05	0.04	0.04	0.03	0.03	0.03
누적설명변량%	0.40	0.53	0.61	0.66	0.71	0.74	0.78	0.81	0.84	0.87

<부록 2> 행복한 삶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및 신뢰도계수

문	항	요인계수	h^2
요인 1 : 경제력($\alpha = .875$)(고유치=3.18)			
"살아가는데 있어서 금전적 여유와 경쟁력이 있는 정도"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682	.619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659	.622
나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다.		.609	.508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89	.592
나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고있다		.493	.521
나는 자기 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		.468	.458
요인 2 : 성취 및 자기수용($\alpha = .832$)(고유치=3.30)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성취감"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648	.537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595	.519
나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589	.467
나는 지금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579	.484
내가 생각한대로 나의 삶이 잘 풀려왔다.		.515	.492
요인 3 : 여가($\alpha = .812$)(고유치=2.65)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활동 참여정도"			
나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다.		.623	.510
나는 스포츠 및 레저생활을 자주 즐긴다.		.612	.485
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자주 간다.		.604	.473
나는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자주 즐긴다.		.497	.433
나는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있다.		.488	.430

문	항	요인계수	h^2
요인 4 : 사회적 지위 및 인정($\alpha=.843$)(고유치=2.05)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자신 위치, 학력 등에 대해 인정받고 있는 정도”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548	.586
	나는(혹은 배우자가)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487	.444
	나는 학력이 높다.	.444	.364
	나자신(혹은가족)의사회적위치로인해서남들로부터인정과부러움을받고있다.	.443	.534
	내가(혹은 배우자가)하고 있는 일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440	.450
	내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29	.379
	내가(직장이나가정에서)일한결과에대해서타인으로부터인정을받아왔다.	.420	.278
요인 5 :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alpha=.875$)(고유치=3.67)			
“미래의 자신의 꿈, 비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715	.550
	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65	.460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651	.514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616	.426
	나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생 활한다.	.601	.422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567	.395
	나는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나간다.	.549	.435
	나는 장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비하고 있다.	.539	.347
	나는 늘 내가 추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508	.398
	내 삶의 상황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다.	.445	.264
요인 6 : 자립성($\alpha=.642$)(고유치=1.87)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하는 정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537	.323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04	.270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98	.317
	나는 부모님이나배우자에게기대기보다는자율적으로행동한다.	.491	.271
	타인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336	.146
요인 7 : 사회, 정치, 문화 환경($\alpha=.807$)(고유치=4.45)			
“현 사회의 제반환경적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나는 우리사회의 직장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637	.539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와 교육환경을 신뢰할 수 있다.	.633	.484
	나는우리사회에서신뢰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고생각한다.	.601	.487
	나는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564	.359
	나는 우리 사회의 치안유지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한다.	.515	.376
	나는우리사회가테러리즘이나전쟁의위협으로부터안전하다고생각한다.	.494	.292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적 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397	.238
	나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한다.	.388	.192
	나는우리사회가학연,지연,혈연보다는능력을중시하는사회라고생각한다.	.372	.157

문	항	요인계수	h^2
요인 8 : 종교($\alpha=.836$) (고유치=2.69)			
"현재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831	.776
	나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730	.657
	종교는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R)	.724	.550
	나는 종교적 가르침(예;성경,불경)에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710	.555
	내종교나신앙을가족이나친구,친지에게권할생각은없다.(R)	.570	.329
요인 9 : 이타심($\alpha=.867$)(고유치=1.61)(고유치=1.61)			
"타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나는 종종 남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686	.507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556	.318
	내 소득(혹은용돈)의일부를어려운이웃이나단체에기부하고있다.	.554	.359
	나는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R)	.477	.243
요인 10 : 자녀의 바른 성장($\alpha=.688$)(고유치=1.70)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도"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627	.405
	내 자녀들은 서로우애가 돈독하다.	.508	.311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506	.337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504	.281
	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준다.	.445	.205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334	.147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편이다.	.285	.089
요인 11 :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관계($\alpha=.668$)(고유치=1.41)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과 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651	.434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다.	.555	.333
	나는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478	.265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474	.299
요인 12 :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alpha=.762$)			
"배우자(이성)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우자(이성)으로부터 배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634	.567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와 대화를 자주한다.	.574	.424
	내 배우자(이성친구)는 가정(나의)일을 잘 도와준다.	.469	.296
	내 배우자는 가정을 우선시하고 가정에 충실하다	.455	.342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충실하다)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와 만족스러운 성생활(신체적 접촉)을 하고있다.	.424	.265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	.419	.344
	나는 배우자(이성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R)	.381	.379

문	항	요인계수	h^2
요인 13 : 대인관계($\alpha=.732$) (고유치=2.44)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도”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		.624	.512
나는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여러 명 있다.		.568	.409
나는 고민을 들어 줄 친구나 이웃이 많지 않다.(R)		.561	.456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522	.431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R)		.407	.381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56	.227
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 한다		.283	.243
요인 14 : 외모($\alpha=.728$)(고유치=2.36)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나는 균형잡힌 외모를 갖고 있다.		.621	.565
나는 남들이 호감을 갖는 외모를 갖고 있다.		.603	.487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 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600	.492
나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R)		.421	.345
나는 외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411	.282
나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25	.170
요인 15 : 긍정적 인생관($\alpha=.728$) (고유치=2.36)			
“살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곤경이나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			
나는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		.502	.317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495	.347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31	.375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쉽게 만족하는 편이다.		.412	.308
나는 일이 잘못 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346	.195
요인 16 : 건강($\alpha=.685$)(고유치=2.01)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이 있는 정도”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R)		.586	.422
나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R)		.512	.351
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494	.323
나는 나와 비슷한 연령 대에 비해서 젊고 건강하다.		.349	.396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가 모두 건강하다.		.330	.291

(R): 역채점된 문항들임

Exp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Myoung-So Kim Hyewon Kim Young-Seok Han Jee-Young Lim
Hoseo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Maumsarang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s of Korean people about what can make them happy, especially by exploring it on the bases of social structural variables of respondents. Through the 1st and 2nd studies with Korean adults, Happy Life Inventory(HLI) was developed. In the 3rd study the experimental form of the HLI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were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1503 Korean adults in order to assess their happiness through 6-point Likert scal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happiness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s' gender,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nd the satisfaction level on each sub-factor of HLI wa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in most of groups self-acceptance and money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at predicting or explaining individuals' happiness.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several specific factors were dominant in predicting happiness of each different group of respondents divided by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Key word : Happiness, Social structural variables, Happy life, Life satisfaction, Koreans